

전통시장 디자인 연구소

수유전통시장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

# 수유리미터

○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선도 수유시장 육성사업단 X 성신여자대학교

곽희은  
성신여자대학교  
gldms417@naver.com

“구분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먼지, 먼지투성이!”

“떡볶이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말씀 드렸는데 반응이 없으세요”

“정량을 알 수 없어요”

“정신없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벌레가 날아 다녀서 좀 더러워 보여요”

“언제 만들어진 반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요”

“위생문제”

“뭔가 어두워요”

“정리가 안되 보여서 정신없어요”

# 왜

“동묘앞 같은 느낌, 골동품느낌”

# 점은 층은 전통시장에

“마트처럼 포장이 깔끔하면 좋을텐데...”

“속고 사는 느낌”

# 가지 않는가?

“냄새나요”

“너무 좋아요”

“쓰레기통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청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환불이나 교환이 힘들어서”

“그냥 환경이 지저분해요”

“마트가 가까워서”

“반찬 위에 뚜껑이 없으니까 먼지가 그대로 쌓일 것 같은 느낌...”

“바닥이 더러워요”

“몇 년째 쌓여있는 것 같은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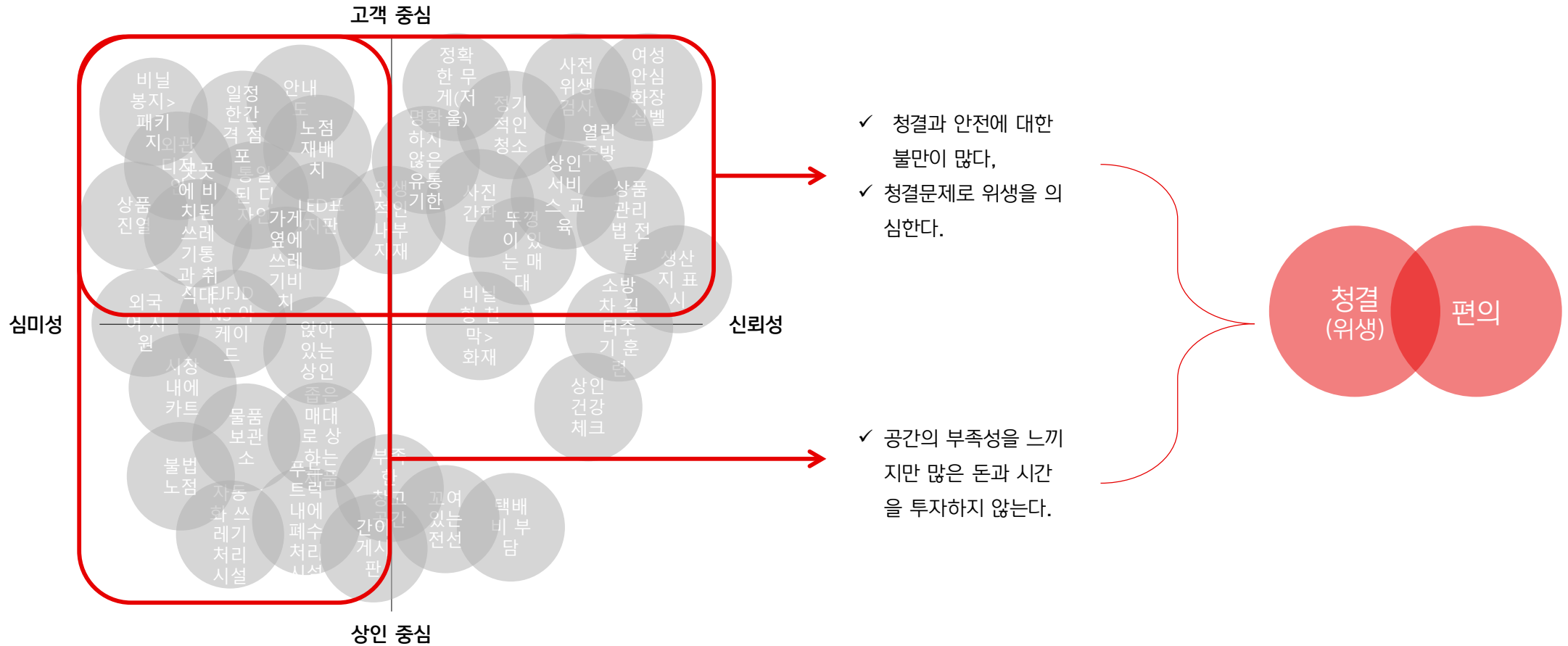
“잘 모르니까 아무거나 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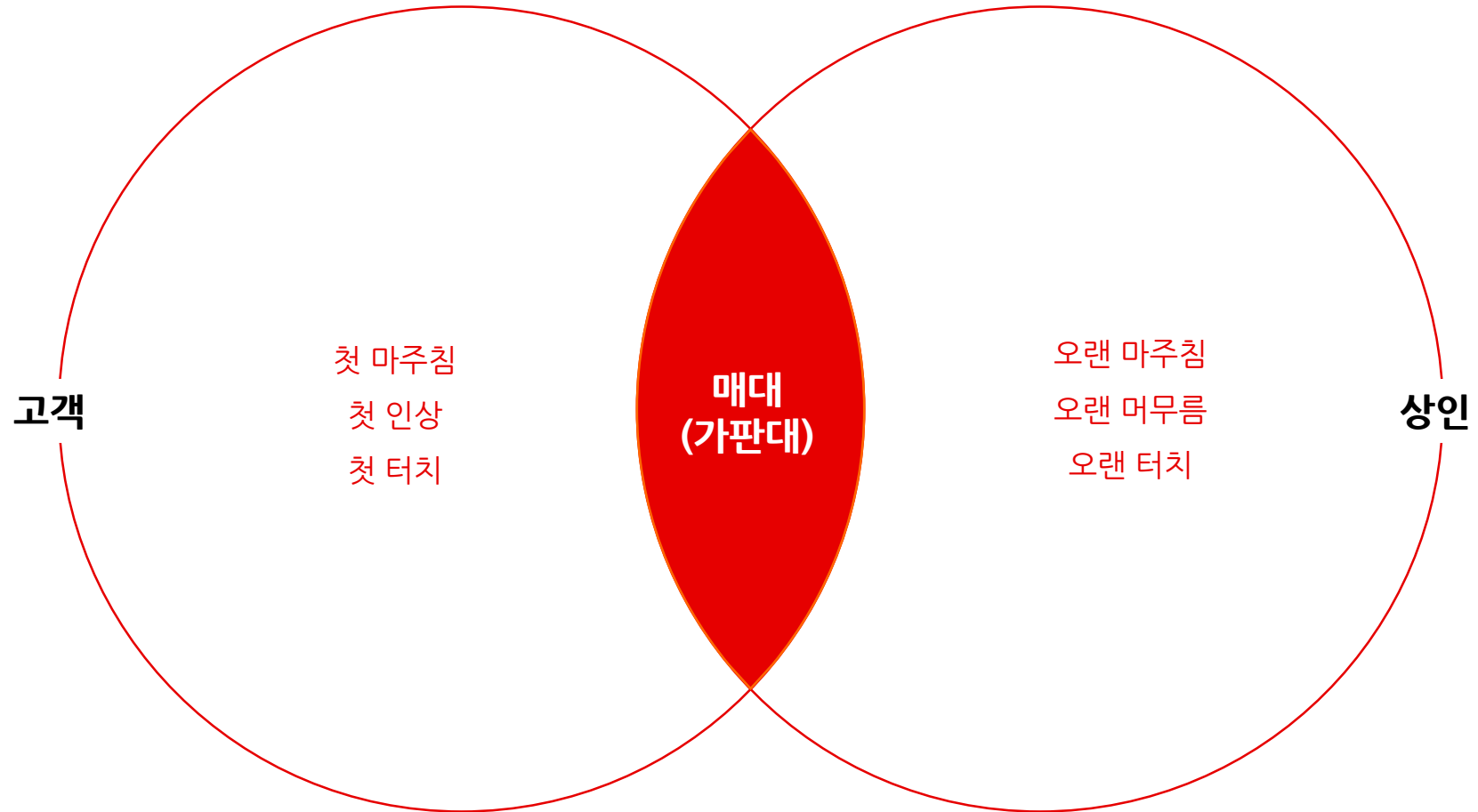


# 젊은 층을 어떻게 하면 수유시장에 오게 할까?

사람은 자신이 겪은 상황 하나로 모든 것을 안 좋게도 좋게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층은 SNS를 통해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고 받습니다.  
**단 하나의 경험으로 전체가 완성되는 요즘.**

청년들이 생각하는 수유시장은 친절하지만 위생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유시장의 그런 청결하지 못한 첫인상을 바꿔  
**수유시장을 쾌적하고 밝은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오고 싶은 수유시장,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 음식재료와 쓰레기가 함께 보관되어 있는 모습
- 점포 옆이나 뒤쪽, 손님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목에 그대로 노출



-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공간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비인기 제품인 것인지 아래에 비치되어 있음
- 보관 상품들이 매대 아래에 비치되어 있어 먼지 쌓인 모습에 유통기한이 의심됨



- 상품들이 전부 오픈형인데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상품에 그대로 매연이나 먼지가 전달
- 좁은 통로로 고객들이 이동 중에 물건을 떨어트리거나 흐트러기도 함



- 매대를 박스나 의자 등으로 대체해서 이용하는 모습
- 폐점시 박스나 의자를 덮은 매대 위에 마구잡이로 올려두어 더러워 보임
- 박스나 종이로 상품명을 적어 붙여두어 헤진 모습이 깔끔해 보이지 않음



1. 오픈형 주방  
    >>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 보이는
2. 가공일자 표시 표지판
3. 우수상점 인증제를 통한 상인들간의 경쟁심 유발  
    >> 가장 청결한 점포에게 부여되는 청결마크

1



구월시장의 두부 가게들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것 같아요.  
두부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니 정말 깔끔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2

파주시가 지난 14일 문산 자유시장을 방문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의 표시기준 표지판을 제공했다.

기존 전통시장의 위생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없애고 전통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발위주의 처벌 행정이 아닌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위한 민생 밀착행정을 추진한 것이다.

3



## ✓ 인사이트

- **상품의 분류와 배치의 기준이 모호하다.**

: 배치를 위아래가 아닌 앞뒤로 해야 상품 구매 시 유통기한이나 신선도 부분에서 고객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것 같다.

- **점포별로 쓰레기와 창고의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 **상품과 매대 정리가 시급하다.**

: 정해진 규칙선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한 전략보다는 정리가 안 되 자꾸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다.

- **유통기한과 원산지의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





- 상품을 관리하고 보관할 공간이 필요
- 노출되어 있는 상품이 위생이 의심되기도 하지만 관리하는 모습이 가게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함



- 평균 마감 정리 시간만 40분 ~1시간 정도 소요 (떡볶이 집-40분이상 / 생선가게-1시간 이상)
- 상품정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지쳐서 부수적인 부분은 대충 처리하는 모습



- 고객을 위한 보관소보다는 상인들을 위한 보관소
- 보관소라고 지칭 되어 있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 오토바이 몇 대와 쓰레기가 있었음

## Another Research\_편의

1. 화재예방 교육과 노후 전기/소방시설을 재정비
2. 마트 강제 휴무제를 도입 >>오히려 피해가 많음
3. 시장과 연결된 시장연립주택  
>> 상인과 노인들이 주로 입주해 있음

### 1

시는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시장의 화재로 시장상인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익산지역 전통시장의 팽배한 화재 불안감에 대한 시장 상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의 노후 한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이 건의됐으며, 점포 내 인화물질 관리법 등을 통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경각심을 키웠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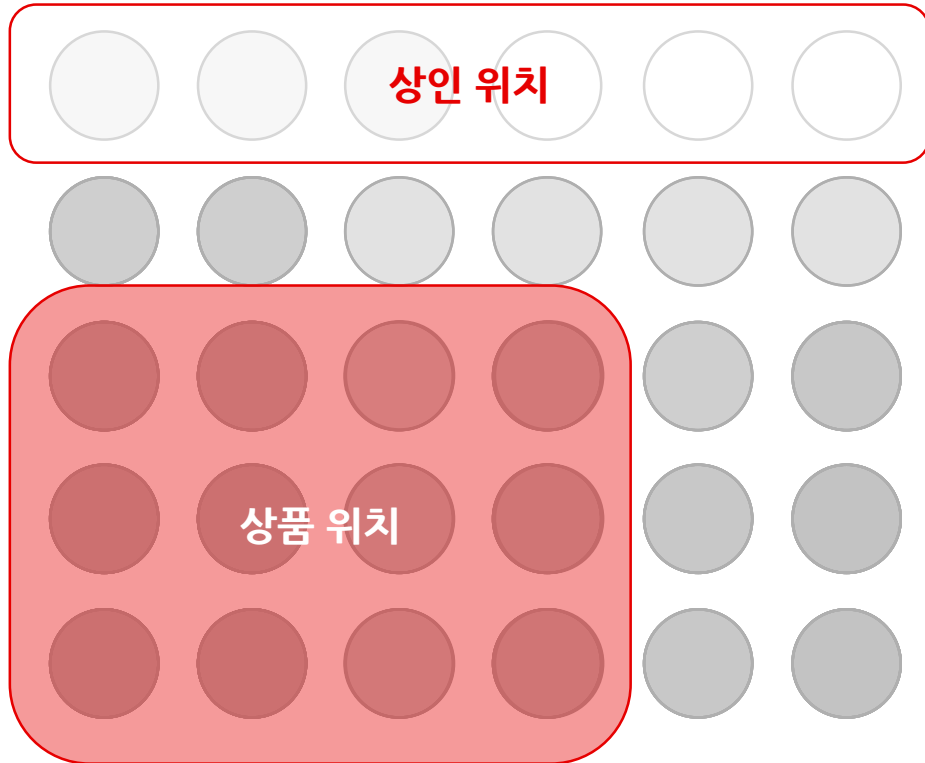


## ✓ 인사이트

- **쉼터보다는 보관이나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오픈과 폐점때 정리하기 쉬운 매대가 필요하다.**
- **무조건 보관상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필요도 있다.**
  - : 보관중인 상품으로 가게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 **화재나 다칠 위험 요소가 다분하지만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
  - : 현재는 이런 부분을 사전예방 교육으로 진행하지만 당장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상인들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상인들의 주변을 바꾸어 인식하지 않아도 예방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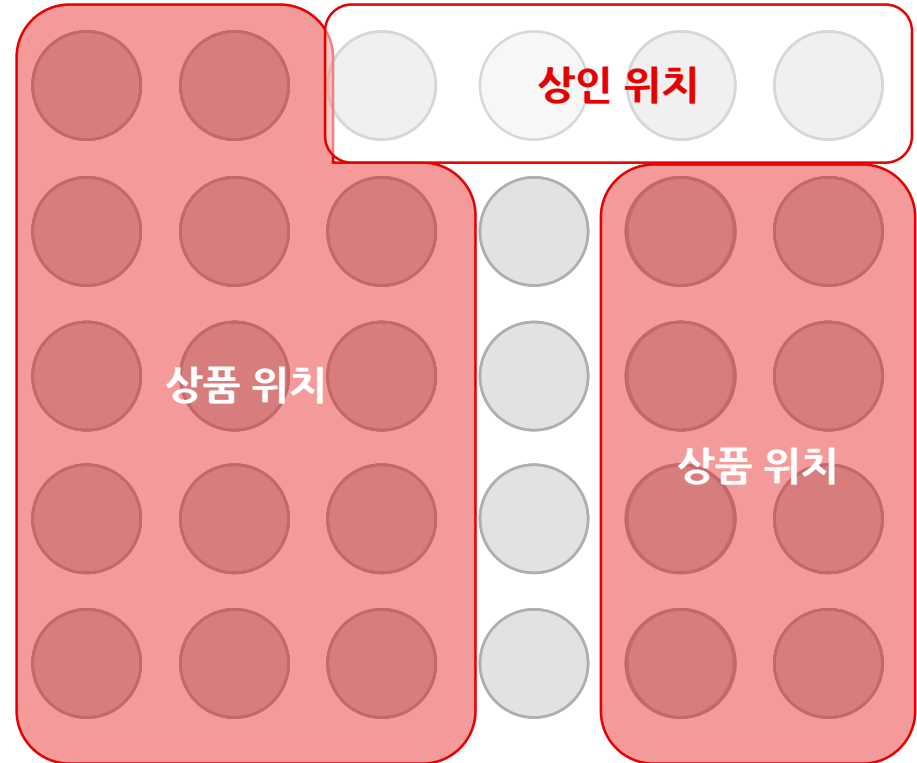
**반찬류**  
(6곳)

- ✓ 인기 상품을 앞쪽에 배치
- ✓ 보관 방법에 따라 배치  
(건조 식품은 뒤쪽)
- ✓ 시식이 가능한 이쑤시게 배치
- ✓ 소량/정량 팩킹이 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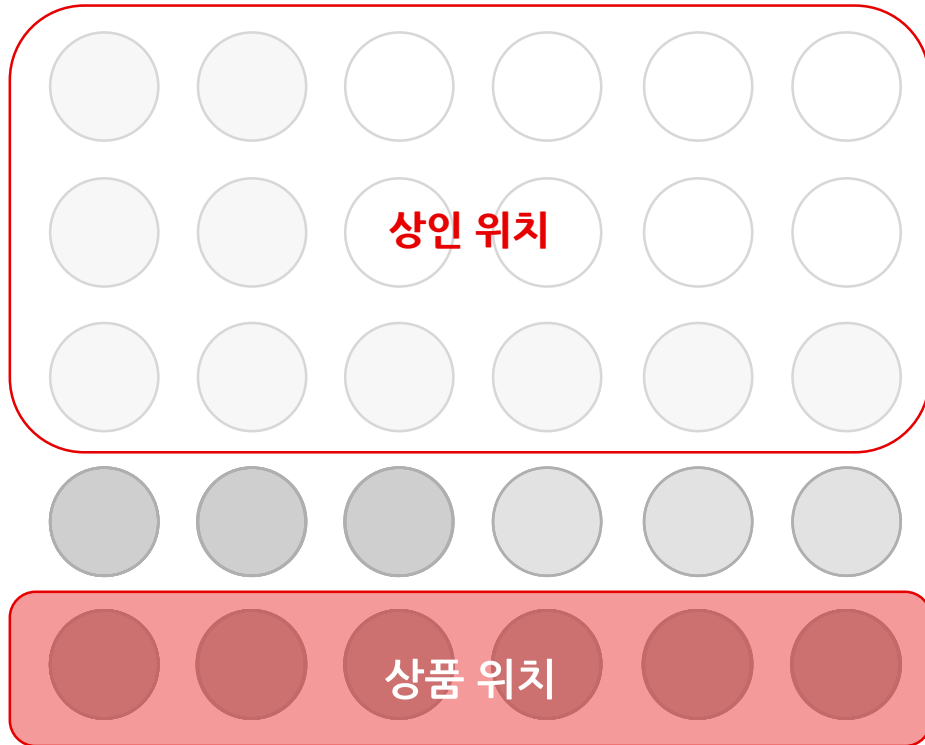
**생선/해조류**  
(3곳)

- ✓ 계단식이지만 단이 낮음
- ✓ 물과 얼음 때문에 약간 찌든 때가 보임
- ✓ 날파리가 많아서 쫓는 장치가 위에 달려있음
- ✓ 싱크대, 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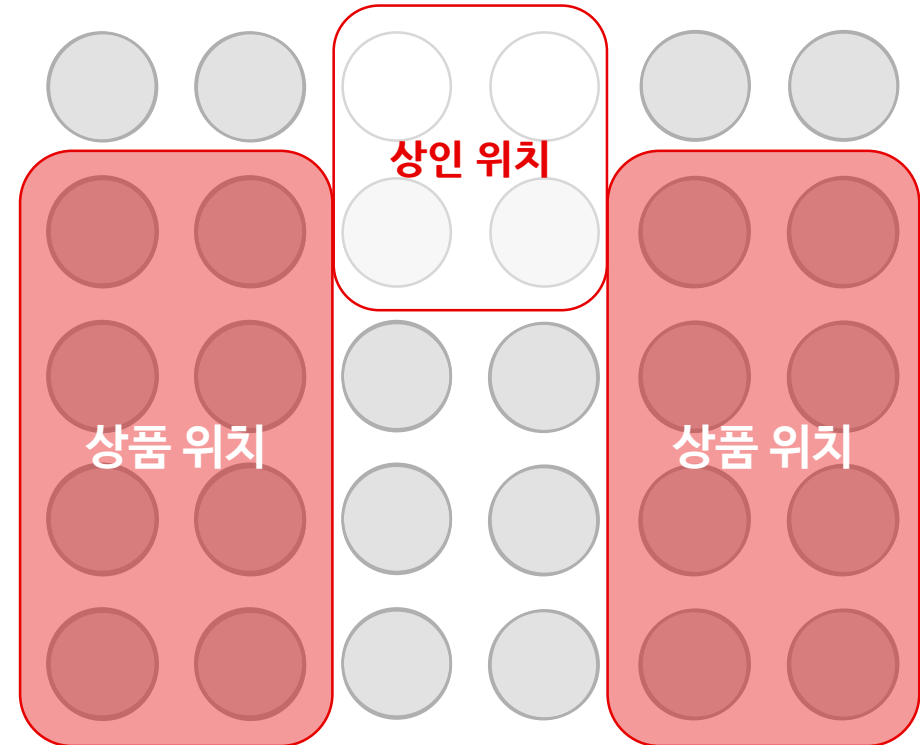
**조리 식품류**  
(4곳)

- ✓ 손님과 가장 가깝게, 허리 높이
- ✓ 비스듬히 세워서 진열
- ✓ 되도록 1단으로 진열
- ✓ 상품을 포개서 계단식으로 진열



**청과류**  
(4곳)

- ✓ 계단식의 단이 높음
- ✓ 수시로 물을 뿌려가면 관리함
- ✓ 손님들이 손으로 만지고 골라서 구매
- ✓ 정량치를 바구니에 담아두면서 판매





여성, 70대  
청과류 (채소, 견과)  
경력 40년

“계절별로 주력 품목이 달라서 매번 바뀌어,  
상품의 크기도 다르고 해서 높이로 조정해”

“상품의 크기에 따라 배치를 하는 편”

“지나가는 공간이 너무 좁아  
다리가 불편해”



남성, 60대  
청과류 (채소, 견과)  
경력 34년

“매달려있는 통은 거스름 통,  
돈에 집착하기보다는 즐기며 일해”

“적은 양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밑에 쟁반을 깔아 두는 모습  
풍성해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듯”

“마감 시간이 2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정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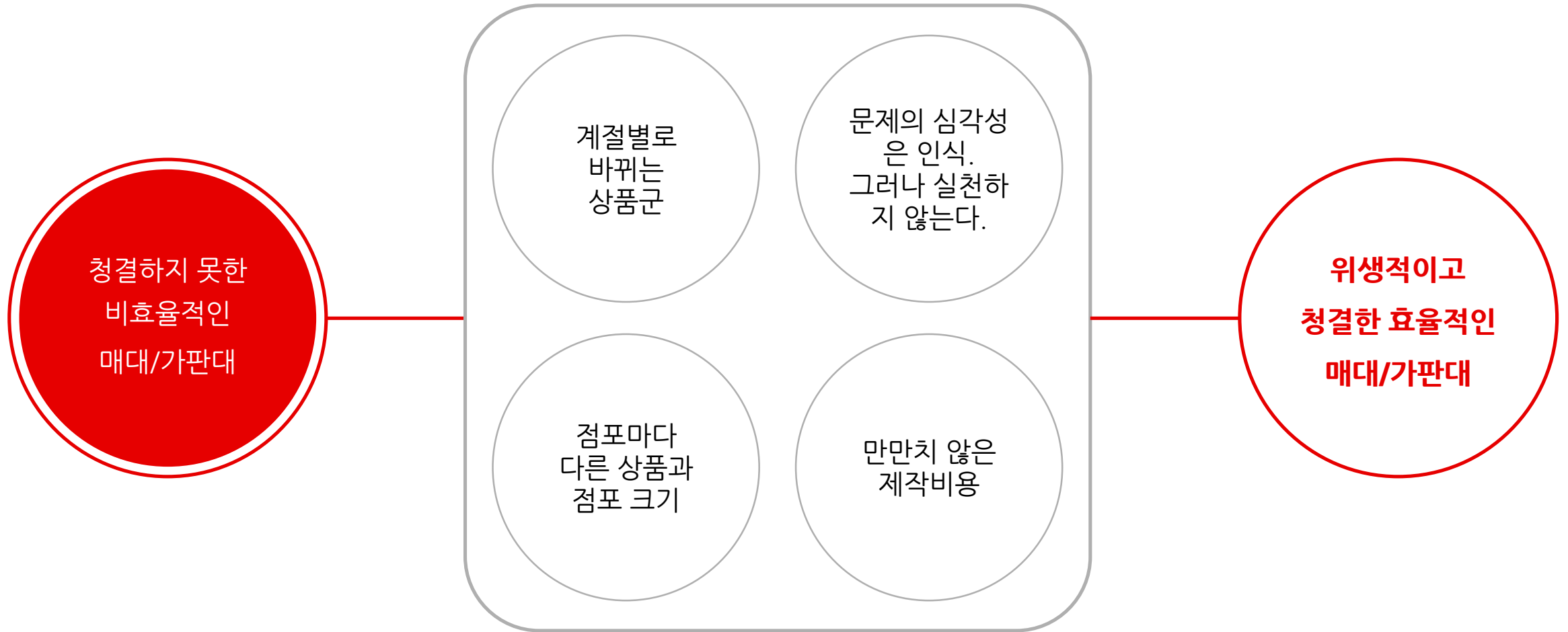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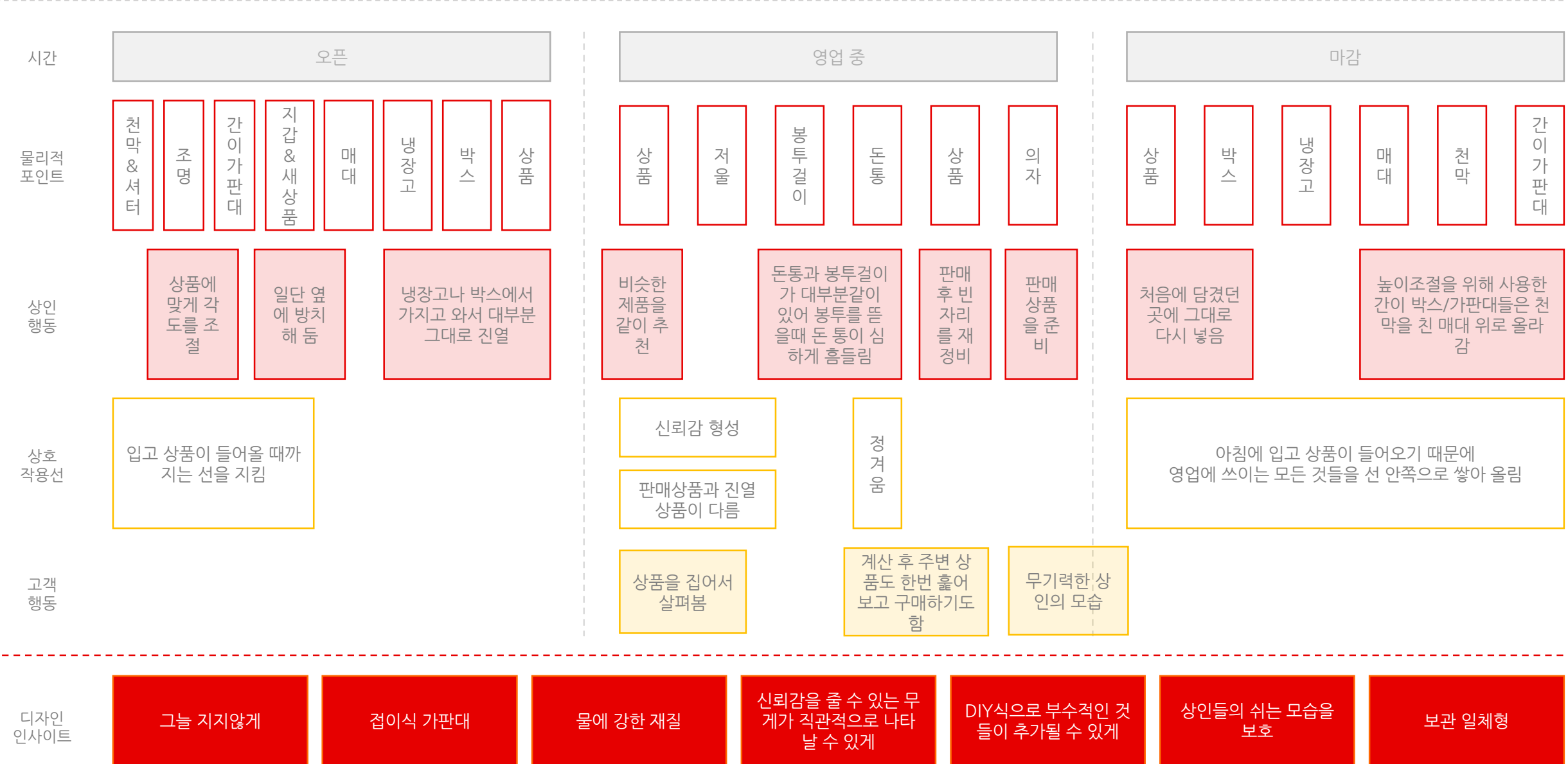
여성, 50대  
반찬류  
직원

“배치 방법이 색상별 보다는  
관리방법에 따라 분류한 듯”

“아침에 9시에 배송 트럭이 들어와서  
선에 맞춰 가판대를 정리해야만 해”

“마감 시 다시 랩으로 동봉 후  
냉장보관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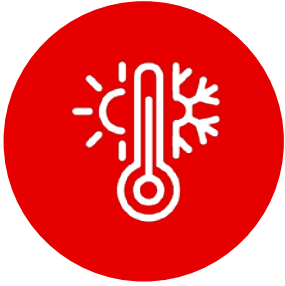


# Touch point\_업종별

	오픈										영업 중										마감						
청과류 (야채)	천막	빗자루	지갑 & 새상품	간이가판대	냉장고	간이박스	박스 & 저울	상품	분무기	봉투상품	소쿠리 & 되	상품	상품	저울	봉투걸이	돈통	상품	분무기	의자	상품	소쿠리 & 되	박스 & 봉지	냉장고	천막	간이가판대	간이박스	
청과류 (과일)	천막 & 셔터	빗자루	지갑 & 새상품	박스	종이이름표	간이박스	전등	간이의자	큰바구니	상품	소쿠리	박스	상품	과도	상품	봉투걸이	앞치마주머니	소쿠리	의자	상품	박스 & 소쿠리	과도	천막	간이의자	간이박스		
생선/해조류	천막 & 셔터	호스 & 빗자루	매대	새상품	냉장고	조명	간이가판대	스티로폼박스	싱크대	냉장고	상품	얼음	수도꼭지	도마 & 칼	상품	수도꼭지	상품	도마	봉지걸이	돈통	수도꼭지	상품	스티로폼박스	냉장고	수도꼭지	매대	천막
반찬류	천막 & 조명	외관냉장고	걸레 & 빗자루	새상품	냉장고	간이가판대	스테인그릇	냉장고	상품	국자	저울	패킹제품	외관냉장고	참기름통	상품	비닐장갑	상품 (패킹제품)	저울	봉투걸이	돈통	싱크대	상품	냉장고	스테인그릇	간이가판대	외관냉장고	천막
조리 식품류	천막 & 조명	싱크대	걸레 & 매대	패킹제품	재포 & 칼 냉장고	버너 & 뒤집개	소쿠리 & 집게	싱크대	일회용품	패킹기계	상품	버너 & 매대	소쿠리 & 집게	비닐장갑	집게 & 상품	시신용	이썬시개	패킹기계	봉투걸이	돈통	버너	패킹기계 상품 &	패킹제품	냉장고	매대	천막	

# Touch point\_업종별

	오픈										영업 중										마감									
청과류 (야채)	천막	빗자루	지갑 & 새상품	간이가판대	냉장고	간이박스	박스 & 저울	상품	분무기	봉투상품	소쿠리 & 되	상품	상품	저울	봉투걸이	돈통	상품	분무기	의자	상품	소쿠리 & 되	박스 & 봉지	냉장고	천막	간이가판대	간이박스				
청과류 (과일)	천막 & 셔터	빗자루	지갑 & 새상품	박스	종이이름표	간이박스	전등	간이의자	큰바구니	상품	소쿠리	박스	상품	과도	상품	봉투걸이	앞치마주머니	소쿠리	의자	상품	박스 & 소쿠리	과도	천막	간이의자	간이박스					
생선/해조류	천막 & 셔터	호스 & 빗자루	매대	새상품	냉장고	조명	간이가판대	스티로폼박스	싱크대	냉장고	상품	젠타	수도꼭지	도마 & 칼	상품	수도꼭지	상품	도마	봉지걸이	돈통	수도꼭지	상품	스티로폼박스	냉장고	수도꼭지	매대	천막			
반찬류	천막 & 조명	외관냉장고	걸레 & 빗자루	새상품	냉장고	간이가판대	스테인그릇	냉장고	상품	국자	저울	패킹제품	외관냉장고	참기름병	상품	비닐장갑	상품 (패킹제품)	저울	봉투걸이	돈통	싱크대	상품	냉장고	스테인그릇	간이가판대	외관냉장고	천막			
조리 식품류	천막 & 조명	싱크대	걸레 & 매대	패킹제품	재료 & 칼	버너 & 뒤집개	소쿠리 & 집게	젠타	일회용품	패킹기계	상품	버너 & 매대	소쿠리 & 집게	비닐장갑	집게 & 상품	이썬시개	쿠칭호일	패킹기계	봉투걸이	돈통	버너	패킹기계 & 상품	패킹제품	냉장고	매대	천막				



### 온도

- ✓ 얼음이나 외관 냉장고 같은 온도유지가 중요한 식료품들이 있다.
- ✓ “온도=신선함” 으로 고객들에게도 신뢰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 ✓ 수치보다는 그래픽으로 나타내면 보다 정확하고 쉬운 관리를 이끌 수 있다.



### 보관 용이

- ✓ 마감 정리 시간이 1시간 반 ~ 최대 2시간까지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과 힘이 소요된다.
- ✓ 정리 방법이 보관하는 박스나 봉투에 다시 넣어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단축해야 한다.
- ✓ 보관과 진열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디자인으로 상인들의 노고를 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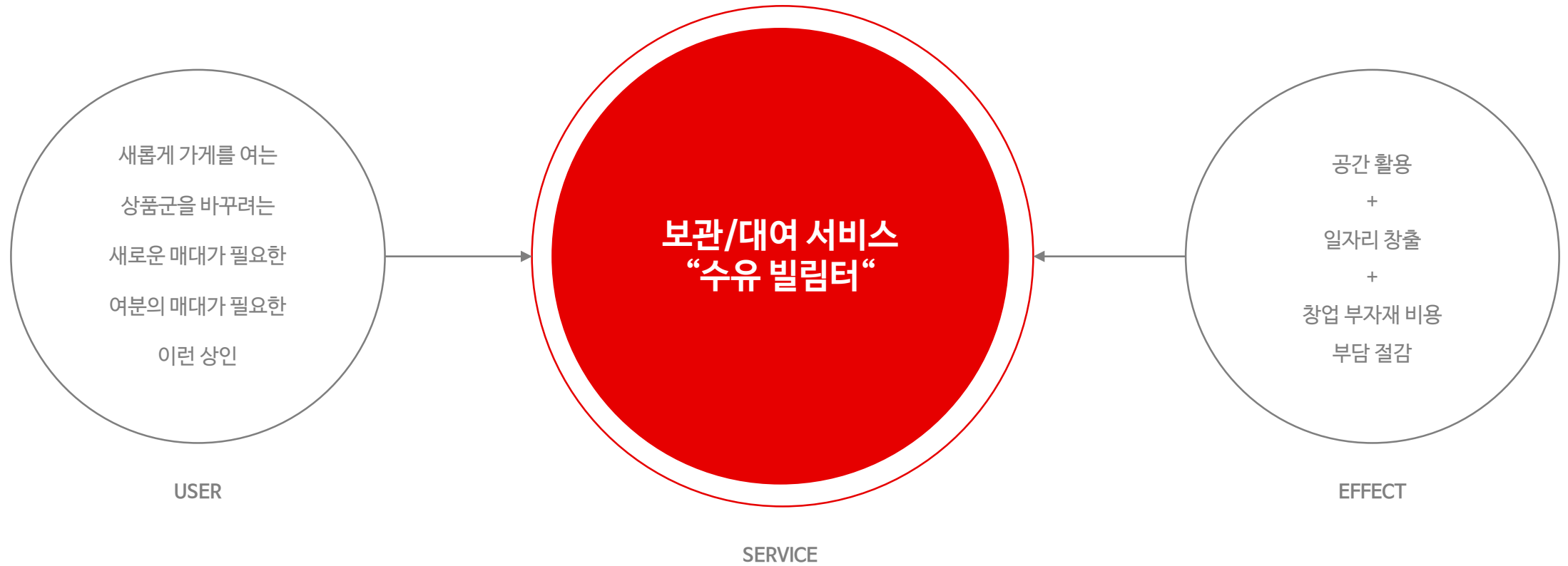
### 무게

- ✓ 고령의 상인들이 매대를 움직이거나 보관 하기에는 너무 무겁다.
- ✓ 박스로만 매대를 구성하기에는 역부족, 무거운 제품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필요하다.



### 위생/안전

- ✓ 수산류는 얼음과 호스로 물을 뿌리고, 평과류는 분무기로 물을, 반찬류는 참기름을 뿌리는 등 다양한 유지법이 있었다. 그로인해 주변에 물때나 기름기가 끼는 등 위생의 문제가 있었다.
- ✓ 주로 나무나 박스로 이루어진 매대와 가판대가 많아 화재시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 ✓ 물에 강한 재질이나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디자인해 더욱 청결하고 안전한 매대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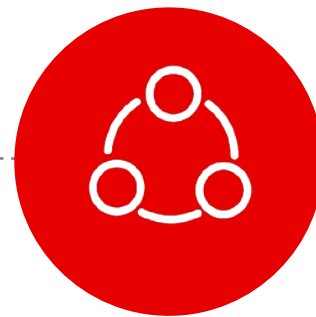
경량



보관 용이



위생/안전



공유 시스템



청결 이미지

## 수유시장의 첫인상을 바꿔 줄 쾌적한 점포의 환경을 만들자!

### 1 청결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위생적인 매대 디자인

- 점포별로 취급 품목과 제품 보관방식이 다르므로 작은 소부품들을 끼워 DIY가능한 매대
- 위생에 민감한 상품들을 위해 스테인리스 재질
- 상품과 가격표가 잘 보이는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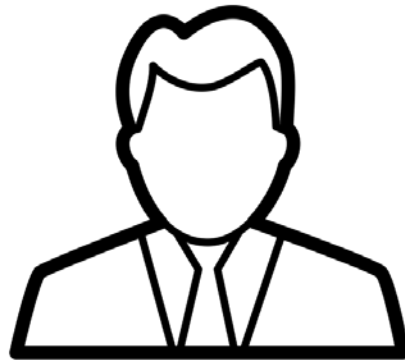
### 2 점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관/대여 서비스 디자인

- 점포의 불필요한 물건을 보관해 쾌적한 점포 환경 조성
- 작은 아이템이나 매대에 필요한 아이템 대여
- 새로운 상인이나 리모델링 하려는 상인들의 부담 감소
- 상인들의 휴식공간 마련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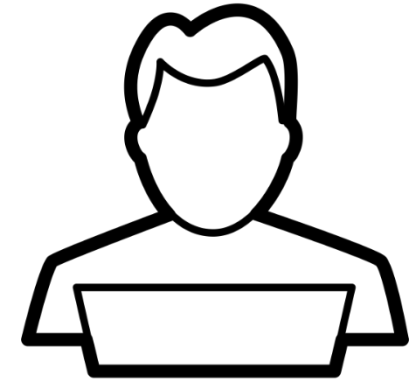
물품과 공간의 질서를 정  
리해줄 경비



회계와 물품을 담당해서 관리  
해줄 매니저/배송기사



물품을 청소하고 관리할  
청소 담당자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관리할 개발자



## 수유 보관소

현재 불필요한 짐이나 오토바이를 정차해둔 빈 공간이다.  
경비실도 구비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도 없었고 따로 관리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넓고 평평한 지대였으며 수유시장 안쪽 가운데 길목에 위치해있다.





유복자(55세,여성)  
 경력 27년  
 채소가게 운영 중  
 허리와 무릎관절이 약함

**“무릎이 아파서 손 닿는 곳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요!”**

아침 6시30분, 오늘도 천막을 걷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전날 공공 묶어 둔 쌓아둔 간이 박스와 소쿠리를 바닥에 내려 둔다. 풀은 천막과 끝은 가게 안쪽에 넣어두고 매대를 앞으로 끌어 배치한다.

배송된 신선한 채소를 잠시 가게 안쪽에 두고 바구니를 꺼내와 매대에 올려 둔다. 다시 냉장고로 가서 채소를 꺼내와 손님들이 보기 좋게 가지런히 채소를 담는다.

오후 1시, 손님들이 땀해진 사이에 아침에 들어온 채소를 다듬는다. 큰 바구니에 물을 담아와 채소를 넣는다. 마땅히 대야를 올려둘 데가 없어서 바닥에 내려 둔다. 허리통증이 심해 간간히 일어나 허리를 풀어준다.

오후 5시, 손님들이 많아지는데 마침 꺼내놓은 비닐봉투가 동이 났다. 손님이 가버릴까 급하게 비닐봉투를 찾는데 잡동사니들이 뒤섞여 있어 도통 찾을 수가 없다. 결국 옆집에서 빌려 간신히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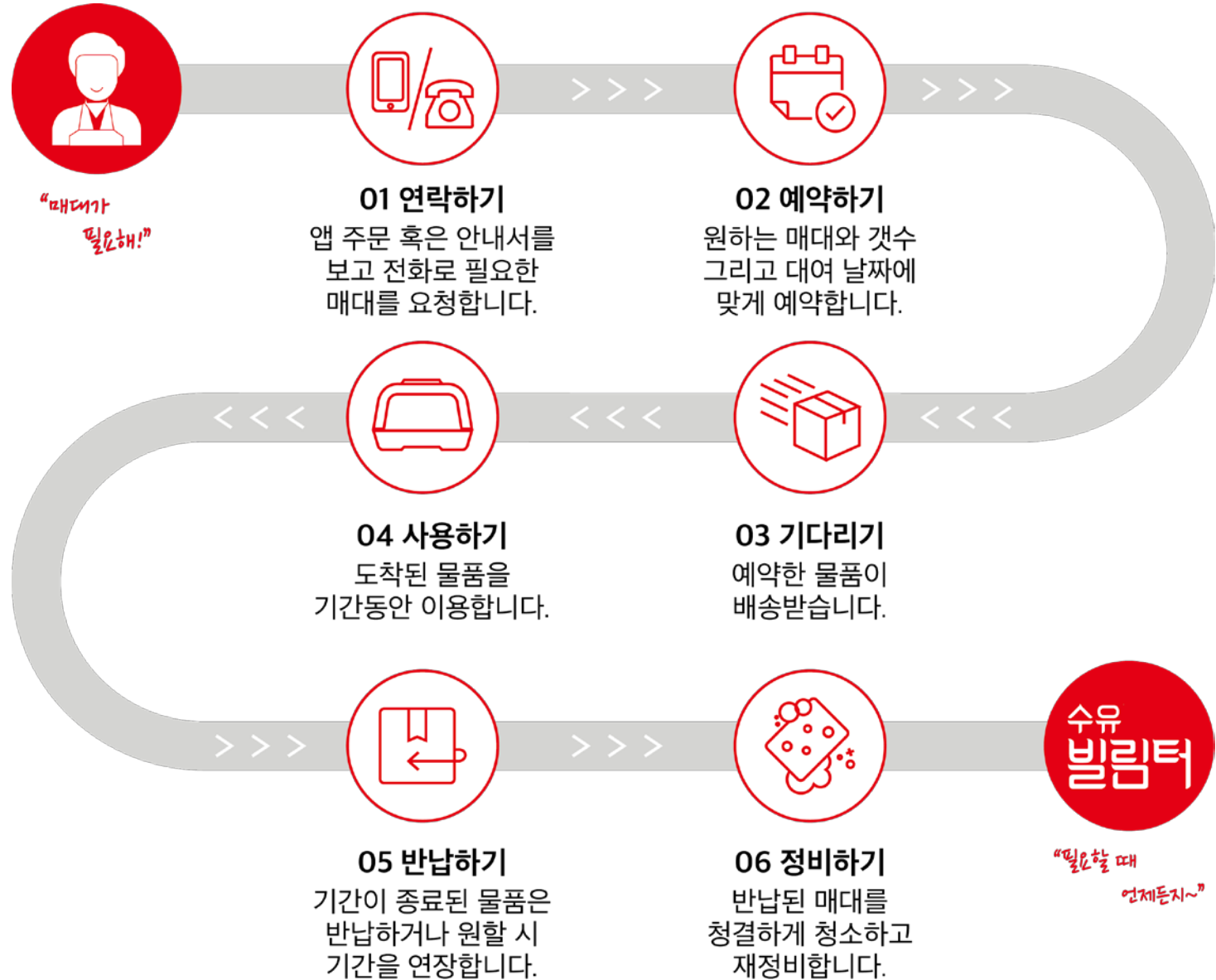
김형남(31세,남성)  
 경력 0년  
 반찬가게 창업 준비중  
 임대 6개월 계약

**“임대 점포에 맞게 새로운 매대를 사기엔 부담스러워요!”**

창업을 준비 중, 그는 좋은 재료와 좋은 기구를 들여 고객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점포 크기에 맞춰 매대와 의자 등 가게 인테리어를 준비했다. 견적을 내 본 결과 생각보다 높은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산품 매대를 사게 되었다.

오픈 전, 주문한 매대가 도착했다. 하지만 점포 앞의 기둥때문에 매대가 맞지 않았고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기에는 오픈이 다가와서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 기둥에 맞춰 매대를 잘라내었다.

계약만료 후, 다른 지역에 가게를 얻게 되었다. 사용하던 매대와 기타 인테리어를 모두 가져갔다. 그런데 전에 기둥에 맞춰 잘라두어서 새로운 가게에 크기가 맞지 않게 되었다. 어중간한 길이와 맞지않는 높이로 결국 다시 매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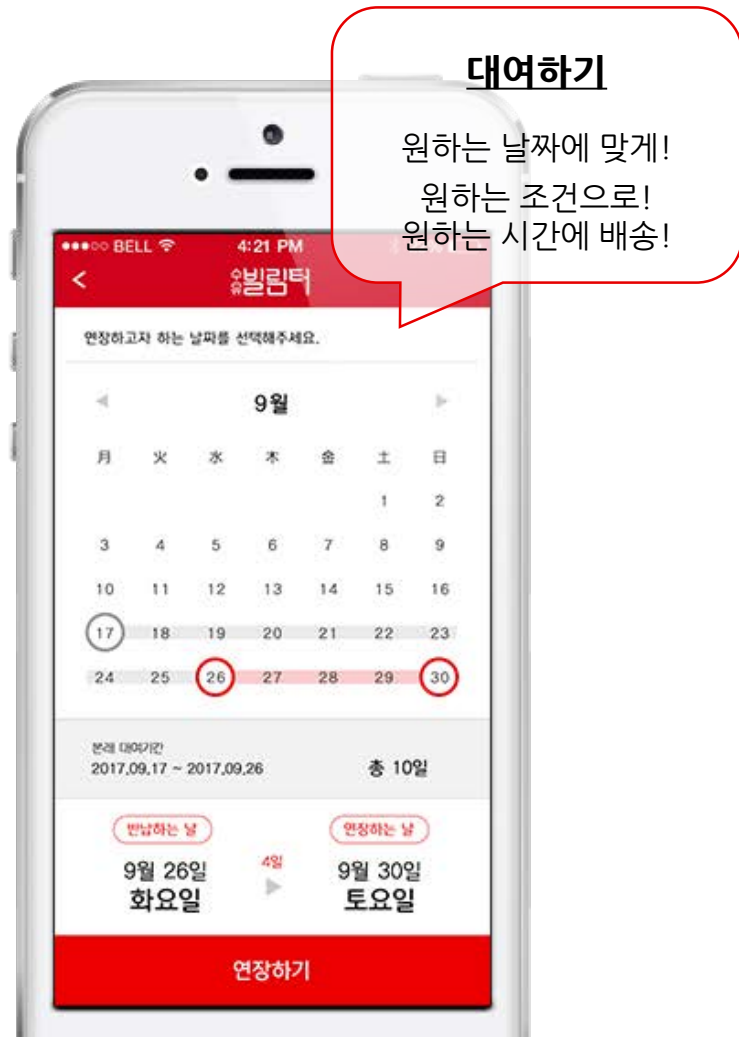


수유빌리터









### **박스 형태**

- 익숙한 형태로 호감형 디자인
- 겹쳐지는 형태로 보관에 우수
- 박스 형태로 공간 활용도를 높임

### **DIY 소아이템**

- 업종별 필요한 재질이나 부자재를 추가할 수 있음

### **맞춤형 형태**

- 상인들의 손 크기에 맞춘 손잡이
- 필요한 크기에 맞게 소/중/대 사이즈 변경



### **투명 보호막**

- 먼지와 벌레로 부터 제품을 보호
- 반투명 아크릴로 제작해 빠르게 품목 확인 가능
- 가벼운 소재로 무게를 줄임

### **공학적 타공**

- 원활한 통기성
- 제품 보관에 가장 적합한 공학적 타공 방식 도입







THANK YOU:)